

코로나19 확산 차단 선제적 대응 강화

특정지역 방문 입도객 발열검사·자가격리 권고
확진자 4명 모두 대구 방문... 능동감시 등 철저
발열·검체검사 비용 지원... 필요시 생필품 제공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명 모두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차단 방역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을 다녀온 도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4명 모두 대구를 다녀온 도민이거나 여행객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구~제주 항공편은 현재 티웨이항공에서 하루 2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200~300명 정도로 전해졌다.
이날 마련된 긴급지원대책을 보면 대구~제주 노선 항공기 탑승객들은 출발지인 대구공항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기내에서는 제주자치도의 지원 사항을 안내방송으로 듣게 된다.

또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도 탑승객들은 공항 내 별도 통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재차 발열체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항 탑승객이 아니라도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다녀온 도민이나 여행객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검사를 받기 위해 4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도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올해 첫 국내기업 투자 유치

도, 어제 (주)미스터 밀크와 투자협약 체결
올해 32억원 신설 투자·25명 신규 고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기업과 올해 첫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제주도의 투자 협약 체결 후 이행 실적 이 저조한 가운데 이를 시작으로 투자 유치 활력 및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4일 도청 관공에서 신설 제조업 투자 기업 (주)미스터 밀크와 제주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서울소재 (주)미스터 밀크는 유기농 유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기업으로 향후 총 32억원을 투자해 도민 25명을 신규로 고용하고 액산시유 및 낙농제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설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회

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 이전 기업과 도내 신설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와 도민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수도권 등 국내 기업 16곳과 이전·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 보류·포기하면서 실제 이행한 기업은 2곳, 이행중인 기업은 1곳에 그치고 있다.

오은기자

① 선택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기획Ⅲ 아젠다20

국제안전도시 불구 범죄·사고 등 빈발

<8>안전 및 교통분야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 최하위=제주도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3차례 연속 선정한 국제안전도시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제21대 총선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살

타나는 등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만 5003건에서 2017년 3만1368건, 2018년 2만7435건으로 수치는 감소한 것이다.

제주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가 도입된 이래 매년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 기준)' 공개 결과 제주는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증가율은 34%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9개 도(평균 44%) 중 가장 낮았다.
생활안전 분야 역시 추락사고가 전년보다 12.4% 줄었지만 개인부주의로 발생한 열상이 6.2% 늘어 5등급에 머물렀다.

제주는 자살 4등급, 교통사고 3등급, 화재 2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한 분야는 없었다.

▶2면에 계속

<연론3사 공동취재단>

알림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성금모금

한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 성금모금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일반 국민의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어린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성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위생용품 공급, 의료진·봉사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모금기간 : 2020년 3월 5일 ~ 3월 31일(화)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인터넷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www.relief.or.kr)
휴대폰 문자 기부 : #0095(1건당 2,000원)
ARS 기부 : 060-701-1004(한 통화 2,000원)
성금 모금 안내 : 1544-9595

동참방법안내
▶개인성금
국민은행 054901-04-011876
농협 790125-62-547117
예금주: 재해구호협회
▶기업 및 법인성금
국민은행 054901-04-225621
예금주: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한라일보 · 한국신문협회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

1. 상생과 배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관광과 소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IMF 위기 당시에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에 갇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도민의 삶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주체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고,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경제의 주체가 합심해 '상생과 배려'의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에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을 제안하며, 도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2. 임대료 인하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권도 자신들의 소유건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낮은 건물주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재산세의 한시적 인하 등 세제 혜택 등의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상생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에 드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세액혜택 등의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약금 피해 최소화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안 받기 또는 위약금 최소화를 위한 상공인들의 자율적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 경제주체들은 행사취소 위약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율실천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4.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주 경제주체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심리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경제주체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생산 차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경제 회복에 전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철통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주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짐을 나누어준다는 자세로 도정과 적극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제품 애용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상생과 배려'의 제주정신은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0. 3.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구농공단지협의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한건설기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Sh수협은행제주지역금융본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ICT기업협회

제주도가스판매협동조합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제주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제주디자인기업협회
제주주마협심회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은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애기업협의회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사)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사)
제주특별자치도수출협회
제주특별자치도해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
제주향만물류협회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토평공업단지협의회
한국LPG산업협회제주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제주지역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소방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장애인협회제주지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컨벤션센터